

Review > 01: 영원한 질풍노도

July, 2020 | 이선영 미술평론가

review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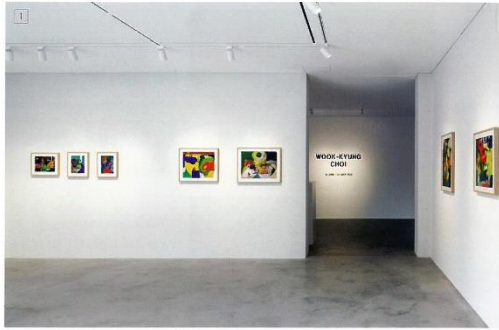
영원한 질풍노도

〈최옥경: Wook-kyung Cho〉 6.18 - 7.31 국제갤러리 K1

소통과 자유는 예술에 대한 기대지로 가장 많이 거론된다. 누구나 소통과 자유를 말하지만 쉽게 이를 수는 없다. 소통이 되어야 자유가 되고 자기 자유는 곧 타자의 자유 가능성을 부여하는 만큼, 양자는 연결될 것이다. 소통이라는 민주적 가치, 자유라는 정상성의 회복에 비해, '예술은 더 빼어나고 독특한 무엇이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지 또한 있지만, 소통과 자유는 현대 예술을 보편성과 연결해주는 최소한의 지점으로 소중하다. 예술은 이미 확립된 코드를 자신을 맞춰가면서 만들어지는 단선적 성과나 그에 따른 경쟁력이 아니라, 자기 언어를 통해 말하는 것이기에 더욱 내밀하면서도 총체적이다. 그 개인적 언어는 공통적 언어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느리다. 예술적 자유는 의사의 기술이 아니라 사본의 그것과 더 유사하다. 즉 작가가 자신은 누구보다도 믿을 삼키기 않은 그리고 극복한 환희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스르며 그만큼 반복도 할지도 모른다. 명확한 이미지가 많지 않은 최옥경(1940-1988)의 작품들은 허물어지고 깃털을 탄흔하는 끝없는 개인임을 보여준다.

최옥경처럼 40대 중반의 한창 작업열 나이에 요절한 작가들 보면, 후세의 사람들이 '진재 화가라고 불러주는 것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은 소통과 자유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작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상대적이다. 훌륭한 작가일수록 그 기대지는 높을 것이다. 최옥경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부딪힌 문화의 차이나 자신이 위치에 대해 고민했다. 1940년생 여성 작가로서, 당시 화가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이북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고민했다. 작가의 때 이른 죽음은 자살은 아니었지만, 삶과 예술에 있어 죽음에 비급가는 자기 소드의 결과라고 할 만큼 열정은 컸다. 일상에 걸친 작업할 것이라는 사실 외에 확정된 것이 없는, 때때로 다시 시작하는 극도의 소모적 과정은 때 작품 밖을 마구하는 질풍노도를 날렸을 것이다. 시집을 출간하기도 한 작가에게 예술의 간섭과 사유의 출구는 그러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옥경의 그림에는 내아침의 증거이기도 한, 계속해서 나타나는 번들이 꾸밈은 흔적이 여백이다.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를 감성과 영감을 순간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속도감 있는 화면의 흔적들은 소소한 감수성이나 머리에서만 만들어 나온 개념을 넘어 온몸을 부딪친 때 뛰기는 장으로 다가온다. 재현주의에 대한 모델이 청이나 겨울이라면, 최옥경의 기본 어법이었건 추상미술의 모델은 형 본 백이다. 1983년 미래학 졸업학위 수여 전까지 미국은 전무후무했던 문화적 격동기였고 동시에, 현대미술에서는 평면이라는 화화의 조건이 널리 공유되고 있어 보편적인 문법(법)들을 통해 각자 어떻게 발화(發話)할 것인가가 문제시된 시기였다. 그렇게 중립한 언덕을 표시해 놓지 않은 작품들이 이 전시에서도 꽤 많다. 흑백과 컬러 두 부류의 작품들 다룬 전시장에는 크랜브룩



(Cranbrook Academy of Art) 재학 중에 그린 초창기 작업부터 1975년경의 작품까지 나와 있다. 작품들은 유화, 이크릴 물감, 목판, 풍채, 오일 파스텔, 일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 이번 전시에 나타나는 말적 스타일이나 풀라루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이전 시대보다 더 추상화된 세계, 즉 평평한 기호가 실제 세계를 점유하는 경험에 대한 반응이다. 팝아트(Pop Art)는 기호화된 현대사회를 불하게 반영했지만, 최옥경은 그조차도 자기 안에 품었다가 내놓는다. 컬러 작품만 모아놓은 전시실의 화사한 분위기에 비해, 흑백 작품은 'HOT DOG'라는 단어를 제외한다면 꽤나 차분하고 때론 경계선을 가지지 않는다. 모노톤의 또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사계를 떠올리는 필획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추상표현주의의 드로잉적 요소가 강한 최옥경의 어법이자 '물감의 작은 나라'에서 온 '작가로서의 자의식'이기도 하다. 캔버스, 종이, 인화지 등 다양한 바탕 면에 구현된 그림, 콜라주, 판화 등 종류도 다양하다. 컬러는 흑백은, 크기가 작은 작품들이어도 심플하다. 먹을 사용하면서도 한지가 아닌 인화지 위에 그려진 작품은 작가를 사로잡은 격렬한 감정을 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드러낸다. 최옥경은 "여자들이 화가로서의 나의 경험은 내 창조의 열의의 원천이 되었다. 내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각각의 작품은 내 삶의 상징이고, 내 감정을 시각 언어로 풀어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꿈이 여성임을 밝히는 태도가 신선했다. 작기도 활동하기 시작한 1983년대 한국에서 여성 화가가 몇 명이나 있었나. 생전 사전을 보면 화강기 없는 '비밀요청'과 '달파도' 상당했다는 일화는 의외의 진술이다. 여성은 오랫동안 타자였다. 대개 타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화될 뿐이다. 타자는 이질적으로 보는 이국적으로, 불온하게 또는 신상하게 표현될 것이다. 최옥경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부분

보 그렇다. 자신을 정방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제의 시도를 즐겨 했던 작가에게 모호한 관람주의가 들어선 여지는 없었다. 최옥경이 미국에서 접한 추상미술이나 그 영향 관계 속에 놓인 한국적 모더니즘에서의 주위, 남성, 화가들을 둘러싼 예술적 담론을 몸들었던 것은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경향이 높았다. 그들의 실제 작품이 그것을 둘러싼 담론과 달랐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최옥경 역시 그러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를 중요시한다. 추상미술은 무엇보다도 조형 언어의 자율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다.

최옥경의 잘 알려진 작품 스타일인 화면 가득히 펼쳐지는 꽃의 모티브는 꽃을 지향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꽃이 있다면 꽃은 종종 그 후드되고 헛기미 다른 존재와 결합하거나 변모한다. 이를 모를 식물이자 우주적 존재에는 실재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다. 꽃이 비교하면 작가가 유화 기법 미국의 추상보다는 유럽적 추상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적 드라마를 돋보이게 하거나 때로는 잡아주는 추상적 행위들과의 조화가 있다. 생애가 끝날 때 보통 10-20대가 질풍노도의 시기지만, 최옥경의 경우 40대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경향이 느껴진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종종 모호 그 결과이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상징적으로 죽는다. 철학 무렵에, 아무리 늦어도 생애에서 은퇴하기 전에 말이다. 그러나 작가에게는 오직 하나의 삶과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현대 미술에 무죄로 붙여진 작은 작품들은 다양한 재료들이 시도된 실험들이다. 작품 《Untitled》(1974)에는 최옥경이 자주 그려낸 꽃의 구도가 있다. 화면의 중심에 생식 기법 같은 구멍이 보인다.

총이 위에 인크와 펜으로 그려진 작품의 점점 바탕색은 밝은 행상을 빛나게 한다. 격렬한 움직임과 상흔이 있는 행태는 관상용



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행동하는 꽃이다. 1960년대로 추정되는 작품 《Untitled》에서 활강 튀긴 저곡들은 파면과 활부들 빛나는 듯한 질감이 느껴진다. 검은 배경과 밝은 행상의 대조는 가장 근본적인 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의 부정 결합도 한다. 바넷 뉴먼(Barnett Newman) 같은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화가가 공간과 빛을 다루었던 다소간 수월적이고 종교적인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캔버스에 이크릴 물감으로 그린 작품 《The Raven of Death and Resurrection》(1975)에서 배경을 이루는 검은 행면은 격렬하게 움직이는 듯한 일체감 있는 유기적 행상을 인정할 있게 지지한다. 오렌지, 붉은 등의 화사한 색이 조합된 정물화 구도의 작품은 추상적이면서도 1960년대의 팝아트적인 발달성이 느껴진다. 1960년대의 종이 풀라루 작업에는 어두운 바탕에 추상적 행상이 정물화되어 있다. 평면적 배경에는 공간감을 주는 밝은 선들로 갖기나 남겨 놓는다.

1960년대의 《Untitled》 작품 중 노랑, 연두, 주황, 청색 등 화사한 색들을 펼쳐 바른 작품은 색은 부드럽지만 행위는 격렬하다. 화면 하단에 장난기 이리저리 남겨 놓은 또는 그려 놓은 것은 하트 표시는 여성(작가)에게 사랑이 중요했음을 알려준다. 흑백 작품에는 남자가 결합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행상들도 보인다. 여성은 남성-인간-백인 주체에 자연적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대상과 존재가 주체가 되어 무엇인가를 표현한 다면? 은폐되고 침묵하던 바다의 것들이 울려오면서 정이 없었던 자리를 잡기 위해 요동칠 것이다. 재현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려 했던 숭고의 미학은 최옥경에게 적절했다. 숭고의 미학을 실현했던 추상미술의 정물에서 최옥경의 작품은 정신이나 신비보다는 물과 정물에 더욱 밀착한다. 그러나 큰 작품이든 작은 작품이든 비슷하게 관원된 추상적 배경과 유기적 행상의 단절감에서 추상회화의 분명한 특징이기도 했던 이원론적 관념 또한 발견된다. 하지만 이것과 이것 사이의 단절은 연결을 위한 조건이자 조화를 찾기 위한 운동성을 낳는다.

이선영 미술평론가

